

危機의 哲學 哲學의 危機 (五)

鄭璣

如斯히 理論과 現實이 相助相和하든 이 境涯 卽 理念界와 現實界의 完全合致境이야말로 人類가 일즉이 單 한 番 가져보았던 理想입니다. 이른바 自然境입니다. 여기선 學問을 爲한 學問, 哲學을 爲한 哲學, 삶을 위한 삶, 곧 이른바 自己目的的(其外가 目的인데 對하여) 現象이 盛行하였든 것입니다.

우리 人類는 苦心과 憂慮 없이 뜻대로 衣食住를 營爲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時間의 흐름을 따라 次次 完全合致境에 波紋이 □起되기 始作하여 오늘과 같은 理念界와 現實界의 完全相剋境을 作成해놓았습니다. 그 不可□의 必然的 原因의 記述은 煩□를 □키 爲하여 여기서는 省略하겠습니다.

卽 오늘의 現實은 理想的 理念界에서 卽 「참」에서 逸脫하여 □落된 不自然境입니다. 이를테면 내가 남을 爲할 마음에서 敢行한 學述이 客觀的 立場에선 害치려는 것 같이 看做되게 되는 것은 合致되었든 理念界와 現實界가 바야흐로 相剋境을 이루려 할 때에 있게 되는 現象입니다. 그러나 참인즉 나의 善心 남에게 가서도 한 가지로 보여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主觀的 美는 正反對로 客觀的 不美가 되는 것이 오늘의 現實입니다. 참인즉 主觀的 美 곧 客觀的 美가 되는 境涯 卽 理念界와 現實界의 完全合致境이어야 할 것입니다. 그러나 오늘의 客觀的 諸般 條件 및 政勢는 「참」이 아닌 것-- □落된 것 卽 이른바 理想郷이 아닙니다. 거짓의 고장이 곧 現實인 것입니다. 決斷코 「혜-켈」의 말과 가지 않아 現實은 決코 合理的인 대는 아닙니다. 完全으로의 過程地帶이니 늘 不完全만이 繼續될 다름입니다. 「不完全한 現實」이라고까지 換言할 수 있는 이 現實은 不完全의 典型 곧 「참」을 잃은 고장입니다. 一切 참인 것이 아닌 거짓의 동지가 卽 우리의 現實이라고 믿어-- 過□는 없는 것입니다.

勿論 食住가 充足하고 □□性的 自由를 認定하는 境遇야말로 正狀態的 境地입니다. 그것이 있다는 건 그것으로서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될 最少限度의 資格을 具有한 것을 이름이라는 것은 곧 「그것」이란 完全且眞正한 「그것」이라는 原理에서 말미암은 것이거니와, 사람 사람으로서 삶을 營爲해가면서 最

低尺度로 가장 必要的인 衣食住만은 充足具備되어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.

正常態란 自然스럽고 至當한 狀態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抽出된 學問이야말로 眞正한 學問, 純粹한 學問, 가장 完美한 學問이겠습니다. 正常態란 完全狀態를 말한 것입니다. 不完全狀! 곧 非常態인 것이겠습니다.

오늘의 現實은 黃金萬能主義者나 唯物論者들을 앞잡이로 經濟 其者를 高調하여 오는 中에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것은 곧 非常態的 現象의 近接的 表現인 것입니다. 적어도 前날에 있어서는 經濟 其者의 □製性は 들어나지 않은 無□된 그대로 있어서도 全然 無關하였던 것입니다. 卽 經濟 其者의 存在를 認識치 못하게 되어있었습니다. 封建的 經濟組織이 必야흐로 均衡을 잃으려는데 賃銀□□者라는 異形의 새로운 奴隸을 產出해 놓은 新階級이 □□하였습니다. 이것은 그 自身이 經濟的 正常態의 破□을 意味하는 것입니다. 아까까지도 그 存在와 必要性을 아지 못한다 至今에 왔어야 처음 空氣의 稀薄에 □□케 되자 비로소 그 存在와 重要性을 認知하게 될 것과 마찬가지로. 있어야할 空氣가 다 없으므로 因해서 空氣의 存在를 認知하게 된 것입니다. 人間社會에 있어서 經濟란 이 空氣와 代□할 수 있는 性質의 것입니다. 한 사람인 以上에야 마땅히 衣食住할 수 「있어야 할 것」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은 卽 正常態가 아니라는 말입니다. 있어야 할 것은 끝까지 있어야 할 것이며, 안다는 것은 徹頭徹尾 알기 爲해야 아는 것인 外에는 다른 무엇을 爲한 手段, 方便으로서 아는 것이 아닌 이것이 이른바 正常態인 것입니다. 正常態에 있어서의 學問은 勿論 眞正한 學問일 것입니다. 곧 正常的인 學問일 것입니다. 實은 잘 사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. 잘못 사는 것은 正堂한 事態가 아닙니다. 「못하는 것」은 「하지 못하는 것」 卽 함이 不可能한 것 卽 非正常態입니다. 못하는 것은 하는 것의 派生的 不美한 現象입니다. 좋은 正常的인 것이며 惡은 不正常的인 것입니다. 오늘은 旨機라고 합니다. 都大體 旨機란 其者가 무엇입니까? 危機 其者는 果然 危機입니다. 卽 狀態가 아닌 非常態입니다. 非常時란 常時에 對한 相對的 名辭입니다. 危機 其者부터가 正常態가 아닙니다. 非危機가 곧 正常態입니다. 오늘날 우리의 現實은 곧 非常態라는 뜻이겠습니다. 곧 正常態가 아닙니다. 果然 우리의 이 現實은 이것이 아님이 아닙니다. 마땅히 먹어야 할 우리는 먹지 못하고 있으며, 衣와 住 亦是 이와 같은 가운데 있습니다.